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89호 【루게 제26063호】 주제 107 (2018)년 7월 8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민족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 숭고한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8일 0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봉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주체의

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우당위원 또한 무력기관 성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와 조선로동당 위원회의 공동명의로와 조선민주주의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립상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빛내어나갈 굳은 결의를 가다듬었다. 양기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 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조선중앙통신】

### 사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승승장구해나가는 불패의 강국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혁명의 백승의 기치로 빛을 뿌리고 있으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굳건히 담보하는 만년토대로 되고 있다. 역사의 온갖 풍파속에서도 생기와 활력이 넘쳐 전진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역사는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우러러 수령님들의 뜻과 념원을 받들어 사회주의의 강국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인민의 수령, 주체의 래양으로 영생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시대적 모범을 창조하신 회세의 정치가, 불세출의 위인이시었다. 일찍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의 혈전관리와 건국의 초해결, 전후의 불구름과 전후복구건설의 생생한 길을 헤치시며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

시었다. 식민적억압과 봉건적질곡 속에 신음하던 우리 인민의 지위와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지난날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을 불패의 강국으로 존엄멸치게 하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거대한 업적이다. 역사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명이나 다름없는 비리와 폐허에서 짧은 기간에 사회주의공업화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와 재부를 다 마련해놓은 걸출한 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20세기의 존엄하고도 복잡한 실천투쟁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입증되었으 며 우리 수령님은 사회주의위업의 탁월한 령도자, 혁명의 대성인으로 세계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사회주의의 길은 영원한 승리와 존엄, 번영의 진로이다. 우리 인민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전진해온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버차게 체험하고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확신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 주신 사회주의의 길은 자주의 기치 높이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온 누리에 떨쳐나갈수 있게 하는 성스러운 길이다. 사회주의는 자주이지 예속이 아니라, 사회주의국가가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강국의 존엄을 떨쳐나가려면 자주정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명도의 전기간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것을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

에 맞게 우리 식으로 풀어나가시었다. 자주의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제적력량을 무리시키고 온갖 원수들의 반혁명적, 반사회주의적공세를 걸음마다 짓부시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복구건설,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로 이끌어나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예지와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독창적인 길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우리 혁명은 추호의 흔들림없이 자주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나갈수 있었다. 사대와 교조, 지배주의가 만연하던 지난 세기에 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신 우리 수령님의 결단도 위대 하였지만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이 살판치는 것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 자주적대를 굽히지 않고 사회주의위업을 배심있게 떠밀어 오신 수령님의 혁명실천은 참으로 천무후무한것이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붉은기가 내리워질 때에도 우리 식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할수 있었던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이 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반만년전횡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서고 우리 조국이 자주의 성체, 불패의 사회주의부토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영애와 불멸의 업적을 창조하는 시대어로 빛나고 있다. 20세기를 자주의 길로 이끄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천주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 주신 사회주의의 길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끝없는 전진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승리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건설명도사는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그 위력으로 세계적변혁을 이룩해온 력사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단결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단결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쏟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의 한평생이었고 수령님의 령도는 인민들속에 들어와 그들의 정진력을 발동하여 력사의 온갖 풍파를 헤쳐오신 가장 인민적인 령도였다. 전후 것처럼 어쩔던 시기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어 나는 통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조성된 단결을 타개해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정도는 오늘날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있다. 수령과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어 운명과 미래를 함께 헤나가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일심단결이 있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사회주의건설에서 세상 모든 반만년전횡사를 다하여서도 누릴수 없었던 존엄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서고 우리 조국이 자주의 성체, 불패의 사회주의부토로 빛을 뿌리게 되었다. 오늘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의 절세의 위인상의 뚜렷한 상징으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영애와 불멸의 업적을 창조하는 시대어로 빛나고 있다. 20세기를 자주의 길로 이끄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은 천주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 주신 사회주의의 길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번영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이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뜻을 피우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인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해오시는 나날에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국가정권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가렬한 전횡의 나날 무상치로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될수 있었고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습없는 나라로 되게 되었다.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오늘날 자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단결의 사상 이 있었으며는 사회가 서로 돕고 이르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에도

우리 인민은 오늘 이 세상 그 어느 나라 인민도 누릴수 없는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있다. 당의 로선과 정책에 인민의 념원과 요구가 철저히 반영되고 국가의 모든 활동이 인민들에게 유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데로 지향되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적인것이 최우선, 절대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대손손 빛내이며 사회주의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열어 주신 사회주의의 길은 인민의 꿈과 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번영의 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있어서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사회주의건설의 근본원칙이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돌우에도 뜻을 피우고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좌우명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인위원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해오시는 나날에 우리 당이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피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고 우리 국가정권이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되었으며 우리 군대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쟁하는 자라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에 의하여 가렬한 전횡의 나날 무상치로제와 같은 인민적시책들이 실시될수 있었고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습없는 나라로 되게 되었다. 인민의 이름으로 빛나는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은 오늘날 자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인덕정치에도 어버이수령님의 단결의 사상 이 있었으며는 사회가 서로 돕고 이르는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에도

창조의 령도이다. 류베없이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반만년 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데미약, 대변혁이 이룩되고있는 현실은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희망찬 미래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뽐내주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열화같은 흥모심의 분출이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사회주의건설의 장구한 역사적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세세년전 전태가며 우리 조국을 인민의 자주적리상과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나라로 끝없이 빛내어갈것이다. 오늘 우리 식 사회주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승리와 번영의 한길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어려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이시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사회주의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쳐나가는 애국인민의 령도이고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해 불철주야의 로고를 바치기시는 인민사랑의 명도이며 천만민들의 정진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기적











# 어버이수령님을 그리는 천만국민의 뜨거운 마음 강산에 넘친다

## 세대를 이어 울리는 총정의 기적소리

### 정 주 기 관 차 대 일 군 들 과 종 업 원 들

“대장동지, 우리 정주기관차대의 로동계급이 언제 조건타발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웁습니다. 전후조직을 치밀하게 하고 로동자들의 열의를 불러일으키면 단 며칠동안에 수리해낼 수 있습니다.”

저저마다 두주먹을 붙린 귀고 일어나 열변을 토하는 일군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기관차대대장의 가슴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앞에 위대한 수령님의 세 조국건설시상을 받들어 애국운동의 봉화를 추켜들었던 전세대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모습이 떠올랐다.

해방후 정주기관차(당시)의 로동계급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기관차를 수리하고 철도수송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앞장에는 집회일동무가 서있었다.

집회일동무를 비롯한 로동계급의 기관차수리에 달려붙는 한편 교열원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이 보장되지 않았아서 기다렸지만 아니라 채탄동격대를 무어가지고 탄광으로 갔다.

동방 한데 성한것이 없고 석수가 쏟아져내리는 경에서 그들은 한울 게이 동진으로 저날 갔고 그 만큼은 빛은 알았으로 기관차를 용서로 정주에서 정양까지 정주로 들어오셔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무들의 의견은 무조건 우리 힘으로 수리하자는 것이겠지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대중적 혁신운동으로 철도운수부분에 조성되었던 연료난을 풀고 나라의 전반적철도운행을 극대연료로 정상화할 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은 집회일동무를 비롯한 정주철도종업원들에게 감사문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애국운동을 건국사상을 구현한 창발적운동이라고 하시면서 이 운동은 온 나라에 일반화하도록 하시었다.

정주기관차대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에 있어서 기관차수리는 단순한 수리전투가 아니라 집회일운동의 발원지인 정주기관차(당시)가 철도운수사업에서 혁신의 봉화를 높이 들고 전국의 앞장에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결사전이었다.

이렇게 되어 정주기관차대에서는 기관차수리전투가 진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기관차수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자재도 모자랐고 부품들도 부족하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정주기관차(당시) 로동계급은 어려운 시기에 당의 뜻을 높이 받들어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로동계급의 전열이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하기에 제동소대의 소대원들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내부에비를 적극 찾아내고 합리적인 수리방법들을 찾아

## 영광의 일터를 빛내여갈 한 마음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공장 모습은 한쪽 그림자였다. 빈틈하게 포장된 구내도로며 참깨비드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여러 동물조각물, 인공폭포 등으로 자연이 나타나는 특색이 있는 정주공장 정자문 앞까지 색깔 단장한 사무사들과 과학기술보급실, 구내식당...

대기는 또 얼마나 신선한지 세렌트공장이란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환기가 깨끗하여, 정갈하여 생산구역, 생활구역, 교양구역이 명백히 구분되어 훌륭히 꾸려진 구상세멘트공장이었다.

하기에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누구나 자기 공장을 정다운 나의 일터, 보람찬 혁명적소라고 자부하고 긍지에 넘쳐 있었다.

경에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심은 자기 부모처자에 대한 사랑, 자기 고향마을과 일터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싹트게 되며 그것이 나아가서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구상세멘트공장에 들어서면 구내에 건립되어있는 혁명사적표시비가 첫눈에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제 58(1969)년 8월 1일 이곳에 찾아오시어 공장관리운영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다.

뜻깊은 사적이 깃들여있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열정과 자랑을 안고 종업원들 모두가 공장에 순결한 마음과 애국의 땀방울을 다 바쳐가고있다고 하면서 공장일군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첫 일과는 혁명사적표시비 앞에서 시작된다. 혁명사적표시비 주변관리로부터 하루사업을 시작하는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더욱 빛내어갈 맹세로 새겨 붙여져 있다.

맹세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공장현대화공사가 한창 벌어질 때였다. 설계원들은 서로의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며 소대로의 여러 장치들에 대한 설계를 하나하나 완성해나갔다. 공사를 앞당기는 열쇠가 자기들에게 있어있었다는 자각을 안고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전투를 벌이는 그들의 사무실에서는 불빛이 꺼질 줄 몰랐다.

어느날 그들의 사색에 방해가 될까봐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선 소대의 한 일군은 눈물이 뜨겨왔다. 현대화사업에 도와주기 위해 공장에 내려와있으면서 설계원들의 모습에 감동을 금치 못한적이 한두번이 아닌 금치 않았다. 매일 대할 때마다 소대원들만큼이나 차오르는 것은 설계원들의 불멸의 영도자육이 뜨겁게 새겨진 공장의 주인이라는 자각

## 흥남공업대학이 전하는 이야기

비록은 곧 짧고 짧은 곧 사회주의는 유망한 명제가 태어난 흥남비료련합기업소는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사랑의 자애이 어디있었나! 역력히 새겨져있는 곳이다.

그 사랑에 받들어 일떠선 흥남공업대학은 기업소의 자랑스러운 력사으로 자기의 한계지를 당당히 이룩하고있다.

대학이 배출한 수련원의 졸업생들속에는 공과국영을 물론 4명의 로력영웅들도 있다.

올해 기업소의 기사, 전문가의 절반이상이 흥남공업대학 졸업생들이며 그 내용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과 발명품들이 수없이 많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일하면서 배우는것은 리론과 실천을 잘 결합시킬 수 있고 생산에서 떨어지지 않고 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유일성을 가지고있습니다.”

해방된 해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흥남비료공장(당시)을 찾아오셨을 때 공장복구와 비료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날 공장일군과 자리를 같이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하루빨리 공장을 완전히 복구하고 잘 관리운영하자면 누구나 열심히 배워야 한다고 하시며 앞으로 로동자들이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뜻깊은 가르치심을 주셨다.

배움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주제 36(1947)년 9월 흥남공업대학을 창립해주시었다. 그 이듬해 어느날 일군을 부르신 수령님께서서는 우리가 자재로 빠른 기간에 기술자출자를 많이 양성하려면 주간대학과 함께 일하면서 배워주는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기술자로 키워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대학건물도 교구나 실험실습기 자재들도 교원문제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명철하게 밝혀주시었다.

세상에 다시없을 어버이사랑속에서 기술인재들의 대렬은 날로 늘어났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열구기관차의 파손으로 하여 흥남항에 머무르던 외국선박 한척을 제때에 수리하여 온 파란을 이룬 사람도 다름아닌 흥남공업대학 졸업반학생이었다. 학생들의 실력이 이렇게 높을진대 교원들의 실력이야 말로 무엇하였는가?

지난해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공장대학교수경연대회에서도 여러명의 교원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은 실상으로 받들어 교육조건

## 길주양의 백도라지가 정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일군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열한 태양의 성지로 더 훌륭히 꾸려내어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은 나라 인민의 마음이 풀없이 달려가는 주제의 최고성경인 금수산태양궁전과 유서깊은 단경고향집에는 김주군 금원협동농장 63작업반 반장 김흥우와 그의 가정에서 키운 백도라지들이 푸르려 내리고 있다. 백옥같이 흰 꽃잎을 활짝 펼치고 태양의 성지들을 더욱 눈부시게 단장하는 백도라지, 그 정갈한 모습에 비친 김주양의 백도라지처럼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 리의 새겨진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인가?

심숙동무가 백도라지를 키우기 시작한 것은 김주군 금원협동농장 약초분조에서 일하던 29년전부터였다.

어느날 아침 심숙동무와 약초분조원들은 배천군의 한 가정을 소개한 《로동신문》 기사를 읽게 되었다. 기사의 주인공은 아버지과 아들, 손자 3대가 어버이수령님을 충정으로 받들어갈 마음으로 수십년을 이어오며 자기들이 가진 백도라지를 만경대고향집 주변에 정성껏 심어왔다는 사실은 그들의 가슴을 후텁게 달구었다. 그처럼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총정의 한마음을 바쳐갈 일군들과 약초분조원들은 더욱 붉게 타는 총정의 마음은 그들의 애국의 열정을 비상히 분출시키는 원동력이었다.

심숙동무는 사회주의수호정의 1세대 제 1선호를 지켜온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작업

## 조미고위급회담에 참가하였던 미합중국 대표단 평양을 출발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마이크 6일부터 7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회담에 통제요 국부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미합중국 측은 역사적인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체대표단이 조미고위급회담을 마치고 7일 평양 역발표된 공동성명을 충실히 리행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 세계평화기구 위원장일행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후안 싸무엘 델가도 세르로 세계평화기구 위원장과 일행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조국의 해방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또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국로환경보호성 중앙양묘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대중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자강도 림업관리국 당위원회에서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중립된 자리에 있던 판리국적으로 수십개의 단위가 3대 혁명불은기를 쥘수있었다.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을 여러가지 대중운동과 결부시켜 진행하는데는 과정에 강제목제가 공공적 초급년동맹위원회가 김정일청년연맹상단대로 된것을 비롯하여 4개의 청년동맹초급위원회가 청년전위모범초급위원회의 영예를 지니었다.

직맹조직에서 대중운동의 성과를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여러 단위가 2중26호모범기업에서 2, 6호모범기업에대상을 정취하였으며 10여개 단위가 모범체육공장의 영예를 지니었다.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판리국안의 일군들부터 자주 진행하여 그들이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대중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문장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자”에 대한 문답시학습경연을 판리국일군들부터 자주 진행하여 그들이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을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대중운동의 앞장에 서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에서는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의 단위를 위한 당 제 7차대회 결정사항을 위한

## 자강도 림업관리국 당위원회에서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 전망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문제들을 반영하여 철저 집행해나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당위원회 부부장이 상 일군들과 행정,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에게 담당단위들을 분담하여주고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과 관련한 집행정형을 본기 1차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도록 하였다.

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실천적도움은 일군들이 대중운동에 대한 관심을 바로가지고 그들 위한 조직과 지도를 실속있게 벌러나가는 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깃들여있는 자강도 림업관리국 일군들은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판리국안의 일군들과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판리국안의 일군들과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당위원회에서는 판리국안의 일군들과 3대 혁명불은기쟁취운동의 실무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



총정의 마음안고 불멸의 꽃 김일성화농 정성껏 키워간다. -김일성화농정일화전시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 절세 위인의 업적 만대에 전하는 불멸의 글발

지금 우리모두의 마음은 조국통일 운동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질 위대한 수령님의 친필비가 새겨져있는 력사의 땅 판문점으로 달려간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글발!

## 〈 김 일 성 1994.7.7. 〉

보편 불수룩, 새끼면 새끼수룩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한생의 로고와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가슴 가득 안겨오는 고귀한 친필이다.

경에 하는 그 고령도 자 갑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오르며 민족의 소망을 실현하는 길에 함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민족의 분열로 인해 우리 겨레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늘 마음씨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예방적으 남조선에서 망국적인 《단선단정》이 조 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민족분열의 위 기를 막고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 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조치로서 남북편서회의를 소집하시어 온 민족 이 사상과 리념, 정경과 신앙의 차이 를 초월하여 민족분열을 막기 위한 거룩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서도록 하시었다.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 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었을 때에 도 그것을 저지파탄시키고 통일운동 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으로 온 겨레를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었다.

평양에서 민족분열사상 처음으로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진행되고 력 사적인 7.4공통성명이 채택되었은 어버이수령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과 한없이 넓은 포용력,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천리해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 선견지명과 숭고한 통포에를 지니시고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조국통일 3대원칙과 고려민주연방 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 단결 10대강령을 비롯한 가장 현실적 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원칙과 방안들을 천명하시어 자주통일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또 얼마나 위대한 것 인가.

한없이 숭고한 조국애와 민족애를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열된 조국의 력사가 하루하루 지속되는것이 가슴아프다고, 통일만 되면



자신께서는 10년은 더 뛰어질 것 같 다고 하시며 어느 한시도 편히 쉬신 적이 없으시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그의 불면불휴 의 로고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그 대로 이어졌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일대 사변 을 안아올 력사적기회로 일대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친히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 회

담을 개최할데 대한 력사적인 합의 가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서광이 비쳐들게 되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북남 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비준 해주시면서 쓰신 아홉자의 글발에 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일대 사변 을 안아올 력사적기회로 일대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친히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 회

담을 개최할데 대한 력사적인 합의 가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서광이 비쳐들게 되었다.

그런데 어버이수령님께서 북남 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문건을 비준 해주시면서 쓰신 아홉자의 글발에 는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일대 사변 을 안아올 력사적기회로 일대 북남 최고위급회담을 친히 구상하시고 그 실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대용단과 한없이 넓은 도량에 의하여 북남최고위급 회

담을 개최할데 대한 력사적인 합의 가 이루어지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밝은 서광이 비쳐들게 되었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글발!

## 〈 김 일 성 1994.7.7. 〉

보편 불수룩, 새끼면 새끼수룩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한생의 로고와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가슴 가득 안겨오는 고귀한 친필이다.

경에 하는 그 고령도 자 갑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오르며 민족의 소망을 실현하는 길에 함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민족의 분열로 인해 우리 겨레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늘 마음씨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글발!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글발!

## 〈 김 일 성 1994.7.7. 〉

보편 불수룩, 새끼면 새끼수룩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어버이수령님께서 바치신 한생의 로고와 쌓으신 위대한 업적이 가슴 가득 안겨오는 고귀한 친필이다.

경에 하는 그 고령도 자 갑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애국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통일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어오르며 민족의 소망을 실현하는 길에 함없이 고귀한 업적을 남기시었다.」

민족의 분열로 인해 우리 겨레가 당하고있는 불행과 고통을 두고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늘 마음씨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통일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을 보아주시고 남기신 불멸의 친필글발!

## 통일애국의 길에 새겨진 거룩한 자욱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인 주제 55(1966)년 여름에 있는 일이다.

당대표자회에서 하실 보고를 준비하고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느날 깊은 밤 회의준비사업을 하는 일꾼들의 숙소를 찾아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애로 넘치는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루에 몇시간씩 자는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이 없는가를 알아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창문밖을 바라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여름 밤의 이야기

보시며 자신께서는 밤이 되면 남조선인민들생각이 되

는 그런 말을 자신께서도 들었고, 자신께서는 아직 조국개선의 인사도 남북통로들에게 하지 못했다고, 조국통일을 위해 나가있는데 그때 그곳 통로들에게 인사의 말도 한번 못했다고 추억으로 어조로 고하시었다.

이때 한 일꾼이 해방직후 서용사물장을 역전방장에 모아 집일성장군님께서 서울에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정당의 집권시기 기무사명부

를 비롯한 군부의 정보기관들이 《정권》안보에 완전히 전락된 사실들이 폭로되어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최근의 조사과정에 밝혀진데 의하면 기무사명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특정보안단체인 보수단체들을 써먹기 위해 그것들에 대한 예산지원에 적극 개입하였다. 그리고 보수단체의 명의로 인터넷에 모략글들을 게재하여 당국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였으리 단국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보수단체성원들에게는 사베금과 명절선물을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정권》안보에 환장한 독재광들의 죄악

제공하고 해외초청행사들까지 벌려놓았다.

또한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직후에는 현정정황을 파악하는 데 구실임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피해자유가족들의 통합장악 등 대대적인 감시활동을 진행하였다. 특히 피해자유가족들과 진보단체들이 진행하는 집회 등을 《과파사위》로 매도하는 보수세력에게 정보를 넘겨주어 보수단체들이 그에 대응하는 맞불집회를 벌려드려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남조선선대 사법통락사태의 진상규명과 주모자처벌 요구

남조선에서 보도에 의하면 5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

단에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 민모두를 경악케 하고 1700만 촛불항쟁을 불러왔던 박근혜, 최순실(국정)통락사태의 뒤에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기업체와의 더러운 결탁관계 폭로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

남조선인민들이 전환대의 하면 2013년 8월 고용노동부에는 삼성전자가주식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여론조작행위를 주도한 김관진역도의 죄행 폭로

통한 여론조작을 주도하였다고 한다.

사이버사법부는 2010년 7월부

어버이수령님, 위대한 심장이 고통을 멈추는 마지막순간까지 조국의 통일을 위해 온넋을 쫓그리 불태우신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 가장 훌륭한 선물

주제 61(1972)년 5월 어느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어느 한 나라의 기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는 기회에 수령님께 조선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중히 질문한적이 있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우리 인민에게 줄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물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고하시

## 잊지 못할 새벽이 전하는 사연

주제 63(1974)년 여름 어느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도 조국통일문제를 놓고 긴

## 남조선에서 대중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 확대

4일 남조선에서의 보도를 보면

2일 남조선 《뉴스》에 의하면 김관진역도가 국방부 장관을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 극악한 살인범죄

일본에서 사람들의 정신도

현혹관계와 인륜도덕 등에 기

얼마전 이와테현에서 한 남성이 1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 대책 없는 자살현상

자살! 들기조차, 입에 올리

일본에서 2만 1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살! 들기조차, 입에 올리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은 곧

## 경제발전 노력

안골라에서 2022년까지 비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은 곧

## 패륜패덕의 란무장인 일본사회

자본주의세계에서 일본은

극악한 살인범죄

일본에서 사람들의 정신도

현혹관계와 인륜도덕 등에 기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은 곧

경제발전 노력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은 곧

경제발전 노력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자본주의사회에서 실현은 곧

경제발전 노력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

## 습근평주석 강력한 당건설문제에 언급

중국의 습근평주석이 3일과 4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전국조

유럽동맹 대외포럼에서 연창하